



핵심 의제

금년 동방경제포럼에서는 214건, 1조 8,500억 루블 상당의 계약 체결

푸틴 대통령 아태지역에 '에너지 슈퍼 링' 프로젝트를 담당할 정부간 실무그룹 구성을 지시

'보스호드' 투자시스템은 첫날 하루 만에 1억4300만 루블 유치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6.09.05, TASS

트루트네프 부총리: 동방경제포럼의 필요성 증명됨

"제 2차 동방경제포럼은 자신의 필요성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업계가 극동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의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이는 비즈니스 상황을 활성화 시킵니다. 즉 포럼은 시의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로 극동지역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업이 설립되고 있습니다"라고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밝혔다.

"우리는 이번 포럼에서 발표한 극동지역 제안 패키지와 법률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 3차 동방경제포럼은 금년 포럼과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반드시 새로운 발전 메커니즘이 개발될 것입니다"라고 부총리는 전했다.

<http://tass.ru/ekonomika/5591689>

2016.09.05, "Rossiskaya gazeta"

금년 동방경제포럼에서 214건, 1조 8,500억 루블 상당의 계약 체결

"그 중 가장 큰 규모는: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부와 "시부스"와 체결한 '아무르 가스화학 단지' 프로젝트 투자 의향에 대한 협정서이며 투자액은 - 5천억 루블. 극동개발펀드와 "

국제 화학 그룹"간 체결된 "연해주 무기질 비료 공장 설립" 협정서이며 투자액은 3705억 루블. 극동개발부와 Polyus Gold기업간의 "타탈킨스키 매장지 개발"에 대한 협정서로 투자액은 985억 루블이다. 극동개발부와 "알로사"간의 "베르흐네-문스크 광석 매장지 개발" 협정서로 투자액은 630억 루블이라고 갈루쉬카 장관이 전했다.

또한 갈루쉬카 장관은 극동투자유치 및 수출지원청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간 러-일 선도개발지역 진출 플랫폼 구축과 일본인 투자자 유치에 대한 협정서. 러-중 농업펀드 기업간 체결된 179억루블 규모의 협정서 2개. "루스기드로"와 일본 Mitsui기업간 체결된 기술 협력 협정서를 언급하며 이 협정서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016.09.05, SakhaNews

제2차 동방경제포럼 총 참가자 3307명

"그 중 207명은 러시아 기업 대표 그리고 94명은 외국 기업 대표". 1500명의 업계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는 총 56개국에서 왔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의 참가국은 일본으로 246명, 중국 227명, 한국 128명 입니다"라고 갈루쉬카 장관이 전했다.

포럼 차원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프로그램 행사는 56개의 세션과 그 중 44개는 키 세션, 전략적 세션은 6, 비즈니스 대화는 5개였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차원에서 포럼에서는 총 1조5천억 루블 규모의 34개의 투자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 선보여졌다.

2016.09.03, Lenta.ru

푸틴 대통령 아태지역에 '에너지 슈퍼 링' 구축을 위한 정부간 실무그룹 조성 지시

"우리는 러시아,일본,한국,중국 기업들이 제안하는 에너지 링 구축 이니셔티브를 지지합니다. 이 링은 우리 나라들을 하나로 엮어 줄 것입니다" 라고 푸틴 대통령이 밝힘. "더욱 빠르고 다이내믹하게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부간 실무그룹 조성을 제안 합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파트너들에게 아태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전력공급가를 제안하고 그 가격을 장기간 고정시키는 제안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푸틴 대통령은 덧붙였다.

2016.09.03 Gageta.ru

아베 신조, 블라디보스토크를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향하는 게이트로 만들자고 제안

아베 총리는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아태지역은 활발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개방된 경제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배경으로 큰 대륙이 있다는 점은 이 역동적인 프로세스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극동에서 비치는 밝은 빛이 거대한 반사효과를 내어 아태지역의 곳곳을 밝힐 것이란 점을 확신합니다"라고 아베 총리가 전했다.

극동지역에 대한 국가 정책

2016.09.03, Ria Novosti

동방경제포럼 차원에서 러시아 동방 링 구축에 대한 협정서 체결

본 협정서는 문화부 장관 메딘스키와 로스투리즘 대표 사포노프 그리고 극동지역인 자바이칼, 부랴티야, 이르쿠츠크 주를 대표하는 9명의 주지사간에 체결됐다. 메딘스키의 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관광, 자원 잠재력을 하나로 엮어 준다고 전했다.

“연해주의 관광객 증가율은 9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65%에 달하였으며 이 수는 중국관광객에 대한 수입니다. 한국, 홍콩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그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대적이며 흥미로운 고품질의 제품인 러시아의 ‘동방 링’은 시의 적절하며 그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사포노프가 밝혔다.

극동의 경제

2016.09.05, Ria Novosti

동방경제포럼 사할린 지역에 약 300억루블 유치

농업, 관광, 교통, 온천, 학, 스포츠, 연료-에너지 단지, 무역, 어업 분야에서 총 17개의 협정서가 체결됐다. 파트너간 합의된 주요 사항은 주로 신 공장 설립과 기존에 존재하는 공장 지원,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추가 도구 도입이었다.

포럼 현장에서 사할린 대표단은 국내 그리고 해외 파트너간 회의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기업인 “치오다 코퍼레이션”과는 가스화학을 기반으로 한 발전 전망과, 아납스키 가스 매장지에 액화천연가스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외 다양한 분야의 의제들이 중국기업해외진흥협회 대표단들과 논의 됐다.

2016.09.05, Yamal-region

북극항로 운송량 연간 3500만 톤까지 증가

북극항로를 통해 운송되는 화물의 양이 곧 한 해에 2천만 톤까지 증가할 것이며, 5년 후에는 3천에서 3천5백만에 달할 거라고 소콜로프 교통부 장관이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전했다.

특히 교통부는 사베타 항구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의 해양, 철도, 도로, 항공 노선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트랜짓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류분야에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 우선순위인 과제입니다”라고 교통부 장관이 밝혔다.

2016.09.02 TPP-Inform

“보스호드” 투자 시스템 하루 만에 1억4300만 루블 유치

첫 투자항목으로 “보스호드” 투자시스템에 총 1억 루블에 달하는 “아비아터미널”사의

국공채가 발행되었다. 이 회사는 (신) 하바롭스크 국제공항의 메인 항공 오퍼레이터며 공기업인 "하바롭스키 공항"의 자회사이다. 데뷔작으로 선보인 채권의 매수 총액은 4300만루블에 달하여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신 무역시장 도입"-극동개발 역사와 러시아 금융시장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다. 단 하루 만에 러시아의 33개의 도시에서 온 투자자들의 신청서가 아무런 홍보도 없이 1억4천루블에 달하였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23조에 달하는 개인저축시장에 있어서는 큰 성과이다"라고 극동개발펀드 대표 체쿰콥프가 밝혔다.

2016.09.02, Vesti

알로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유라시아 다이아몬드 센터 오픈

9월 2일 유라시아 다이아몬드 센터가 트루트네프 부총리, 좌르코프 알로사 회장, 보리소프 야쿠찌야 주지사 참석 하에 공식 개막식을 펼쳤다. 본 센터는 보석가공 업체와 인프라 시설, 전시화장, 사무실이 입주한 단지이다. 이 센터는 원석과 다이아몬드 거래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의 연사들: 연설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우리는 현재 정계 재계의 아태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걸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제공하며 전망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극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제 와 우리의 행보, 이니셔티브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야심차고 대대적인 과제를 내세웠습니다. 바로 극동지역을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선도적인 사회경제발전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가의 우선순위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현실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 있으며 안도할 수 있게 하는 성과물입니다. 현재 극동의 생산 증가율은 5%이상이며 러시아 전체의 수치도 3.1%로 미약하지만 성장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극동지역에서만 5%라는 점입니다. 작년에 이 지역에는 추가로 1

조루블이 투입되었으며, 300건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즉 우리가 제안한 사업지원의 수요 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귀한 극동지역에서의 변화인 인구 율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바롭스키 크라이와 사할린 야쿠치야 추코트카에 인구 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연속으로 극동연방 구에 출생률이 사망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극동에서 이주하는 시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극동 지역이 갖고 있는 역내 국가간 경제적 연계와 인적 교류, 호혜적 산업구조 등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은 바로 이러한 통합과 성장의 가능성을 실현시켜 나갈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님의 '신 동방정책'은 극동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 가능한 비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제부터 1년에 한번씩 이 곳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함께 어떻게 양국의 협의 사항 8가지가 실행되고 있는지 검토합시다. 앞으로 매년 이를 위한 자리를 가져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 참석자 분들은 이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관구 전권대표, 동방경제포럼 조직위 위원장:

“동방경제포럼은 극동지역이 더욱더 빠르게 개발되게 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성장속도 측면에서 보자면 새로운 투지 프로젝트와 투자유입량은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 단계라는 점이란 이해도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에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더욱 더 종합적이고 경쟁력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의 개발은 가정 먼저 이곳에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들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펼쳐가게 하기 위해서는 극동이 발전하고 있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갈루쉬카 러시아 연방 극동개발부 장관:

“제3차 동방경제포럼 시작과 함께 새로운 선도개발지역 메커니즘이 개발되고 가동될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2.9조루블에 해당하는 500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것입니다. 2017년 동방경제포럼 개최 전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입항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무비자 체제를 실행할 것입니다. 또한 신 조세 상승율로 인해 형성된 자금으로 극동관구 금융 거시지역 연구소- 극동개발펀드에 투자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전력공급가를 인하가 시작되어 2년만에 러시아평균치 (3.19루블)에 달할

것입니다. 이 요율은 아태지역에서 가장 낮은 요율이며,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도 제공될 것입니다.”

소콜로프 러시아 연방 교통부 장관:

“극동은 특별한 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가장 짧은 물류 노선이 있습니다. TSR을 통한 루트는 다른 대체 노선 대비 운송기간을 1/3만큼 단축시켜 줍니다. 이곳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컨테이너 수송에 특별히 집중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바이칼 아무르 철도를 서쪽과 동쪽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몇 년 후 ‘쁘리모리에1, 뿌리모리에2’ 운송노선이 가동 될 것이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 민간 파트너들과 함께 실행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중국, 한국 그리고 극동간 교통 및 전기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바크 러시아 연방 에너지 부 장관:

“러시아 극동에는 경쟁력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전망 있는 프로젝트로는 투자와 기술 통합을 필요로 하는 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 몽골간의 에너지 링 구축입니다. 이 분야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 에너지 분야의 성장과 그리고 합작 프로젝트를 실행 시킨다면 약 13% 석유와 16% 가스가 매장돼있는 극동지역과 동 시베리아 경제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드라이버가 될 것입니다.”